

# 일상에서 악기 배우며 예술의 꿈 펼쳐다

익산시, 시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최종 발표회 가져

익산시가 추진 중인 1시민 1악기 프로젝트가 시민들에게 예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내년도 사업을 확대 추진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1만명 시대로 도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7일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악기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16개 팀, 총 90명이 참여해 악기 강습을 통해 갖고 닦은 연주 실력을 뽐내며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는 참가한 16개 팀 중 사전 평가 점수인 출석률, 홍보 점수와 발표회 당일 참여율, 무대 매너, 핸드싱크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3개 팀을 선정하고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수상한 팀은 3등 원광대학교에서 지인들과 함께 배운 은빛소리플룻 팀, 2등은 가족으로 이루어져 피아노를 배운 높은음자리, 대망의 1등 팀은 직장인 위주로 구성돼 야근에 강습 받은 솔트아피 고고장구팀으로 각 팀에게는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강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는 시민 모두 일상에서 쉽게 악기를 배우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악기 강습에서 악기 기증, 나눔까지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10월부터 11주간 진행했으며 이날 참가자들은 지인, 가족, 친구들과 함께 최종 발표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방식



익산시는 지난 27일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악기 발표회를 개최했다.

과 달리 시민들이 배우고 싶은 악기를 함께 배우고 싶은 지인, 가족, 친구들과 원하는 공간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배우고 싶은 악기와 장소를 정하면 강사를 파견해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개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부담됐던 악기 강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발표회를 통해 악기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음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내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반려악기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문화예술인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수상팀 솔트아피 고고장구팀의 장연하 팀장은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배우고 싶었는데 미처 배우지 못한 악기들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의미깊은 시간들이었다"며 "무대에 처음 서봐서 너무 떨렸지만 경험하지 못할 순간이며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시민들이 주변 이웃과 소통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내년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예술로 행복해지는 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시간여행을 맛보다' 사진 전시회

전북대병원, 31일까지 천지사우회 제26회 회원전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어린이 병원 복도에서 천지사우회의 사진 전시회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천지사우회는 사진에 관심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사진을 통한 사회봉사 및 회원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시간여행을 맛보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시회는 천지사우회의 제26회 회원전으로 전주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촬영한 천지사우회 회원 13명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회는 명마와 싸우는 환우와 내방객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어린이병원 복도에서 전시 중인 총 28여 점의 작품들은 전주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 춘추동주 4계절의 생생한 시간의 흐름



를 프레임에 담아내고 있다.

유희철 병원장은 "작가님들의 혼이 담긴 작품을 우리 병원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준 천지사우회 작가분들께 감사드리며 전시장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작품을 통해 소통하며 치유와 위로의 마음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재개관

3년간 30억원 투입 리모델링 공사 완료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리모델링 완료에 따라 28일부터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산민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자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개관 10년을 맞아 국내 대표 근대역사박물관으로 도약하고, 체험의 질적 향상 및 관람객 편의 제공을 확대하고자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지난 2020년부터 총 3년간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는 전문가의 자문과 설계를 거쳐 지난 6월부터 박물관 휴관 후 6개월간의 본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된다.

박물관의 주요 공사 내용을 살펴보면 로비 벽면에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군산의 근대역사에 대한 영상을 대형 화면으로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게 했다. 1층 해양물류역사관은 전체적으로 진청색으로 색상을 꾸며

해양 테마 이미지를 살리고, 영상실에 멀티비전을 설치해 군산의 해양물류 역사에 대해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1층 기증자 전시실은 220여명의 기증자들의 명패를 입구에 설치하고 전시실 안에는 기증자의 이름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박물관의 뿌리가 된 기증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만들어졌다. 2층 독립영웅관은 기존의 좁은 전시실을 확대해 군산출신 독립운동가 114명의 유물을 폭넓게 전시하게 된다.

3층 근대생활관은 박물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입구에 증기기관차 영상 공간을 만들어 시간여행 속으로 들어가는 효과를 냈다. 내부에는 1930년대 사진관과 세관 감시실을 새롭게 조성하여 관람객들이 근대문화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전시실은 전면 개편해 쇼케이스마다 향온향습기를 설치함으로써 전시 유물의 보존에 더욱 힘을 썼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새일여성인턴 · 기업환경개선 · 집단상담 참여자 모집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2023년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 기업환경개선, 집단상담 등에 참여할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새일여성인턴은 경력단절 여성에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기업이 여성인턴 1명을 채용할 경우 3개월간 매월 80만원씩 지원받게 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기업과 인턴에 새일 고용 장려금과 근속 장려금을 각각 80만원과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23년도에는 총 125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참여기업 요건은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다만, 소비·

향락업체, 파견직 근로자, 영영성 근로자, 기타 다단계 판매업체 등은 제외된다.

인턴 참여 대상자 요건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 희망 여성으로 새일센터에 필수로 구직 등록한 여성이다.

다음으로, 여성근로자 복지증진과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전용 생활편의시설 개·보수를 목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근무환경에 장애가 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업 환경 개선으로 여성취업 확대와 근무 만족도 제고, 아울러 기업의 여성구성인 확대를 유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상담(취업입문스쿨) 프로그램은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취업을 희망하지만 막연함과 자신감 결여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직업심리 진단을 통한 자기 이해, 취업 자신감 고취, 입사지원서 작성, 모의면접으로 구직 능력을 높이고 직업훈련 연계와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기본과정(20시간)과 심화과정(12시간)으로, 별도의 교육비 없이 수료증 발급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2회)을 인정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전정희 센터장은 "새일여성인턴, 기업환경개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토대로 도내 구직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여성 재직자와 여성친화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jwec.re.kr)나 취업지원팀(063-254-3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군산 장미갤러리, 故하반영 화백 '포근한 心' 展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는 내년 2월 19일까지 故하반영 화백의 '포근한 心' 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예술정신으로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 받은 故하반영 화백(1918~2015)은 동서양의 융합으로 '동양의 피카소'로 불렸으며 90대에 귀향 후 군산시에 100점의 작품을 기증해 군산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故하반영 화백을 기리는 전시로 기획됐으며 한국적인 멋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했던 그의 수많은 작품 중 16점이 공개된다. 전시 작품은 가을과 겨울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포근한 마음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의 염원을 느낄 수 있는 '어머니의 장생', '가족', '봄아이다' 등 화백이 시에 기증한 작품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